

일제하 제주지역의 공장·회사설립과 경영활동*

- 金根蒼와 崔允淳의 기업가활동을 중심으로 -

고 광 명**

〈 목 차 〉

- I. 머리말
- II. 일제하 제주도 공장설립 현황
- III. 일제하 제주도 회사설립 현황
- IV.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경영활동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연구는 식민지기 제주도에 공장 및 회사설립으로 인해 한국의 면화가공·판매업, 자동차 운송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제주도 근대경제 형성에 이바지한 김근시(金根蒼)¹⁾와 최윤순(崔允淳)²⁾의 기업가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김근시는 1924 제주면에 제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S2033).

** 제주교육대학교 연구교수

- 1) 김근시(1875~1956)는 호는 又菴으로 한말의 관리와 일제시대의 사업가이다. 1922년 제주상선주식회사, 1924년 제주면업주식회사, 1928년 제주주조주식회사, 1935년 소화운송주식회사, 1940년 제주수산주식회사(1939년 제주도해조주식회사를 상호변경)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여러 차례 전남도회 평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김찬흠편저(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97쪽.
- 2) 최윤순은 1925년 제주통운주식회사를 일본인 萩原駒藏와 합자회사로 설립하여 제주도내 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삼도리에서 소라통조림공장을 설립·운영하였고 제주상선주식회사(1922), 제주면업주식회사(1924), 제주전기주식회사(1925)의 취체역도 겸직하였다. 제주상공회의소(1991), 『제주상의55년사』, 189쪽.

주면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면화가공·판매업 발전에 상당한 경영성과를 이룩한 산북 지역의 기업가이다. 반면 최윤순은 1925년 한·일 공동으로 제주면에 제주통운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동차 운송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산북지역의 기업가이다.

조선실업신통대감(1931)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에 일본인 3개사, 한국인 4개사 등 총 7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한다.³⁾ 김근시가 설립한 제주면업주식회사는 자본금 20만圓(불입자본금 5만圓)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신용, 지불, 업태는 C등급으로 다른 3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최윤순이 경영에 참여한 제주통운주식회사는 자본금 6천圓(불입자본금 6천圓)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 자본금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다. 신용, 지불, 업태는 C등급으로 다른 4개사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김근시와 최윤순은 근대 제주경제의 실권을 장악하며 지역자본 형성과 제주도민의 면화가공·판매업과 자동차 운송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독보적 인물들이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일제하 제주도 공장 및 회사설립에 따른 기업가활동을 파악한 연구는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한 지역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제주도에 대한 민속, 문화인류학, 사회학 분야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영사, 경제사, 기업가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제주지역 경영사의 일부분으로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간의 연구의 공백을 메우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일제하라는 특유의 기업 환경 속에서 활동한 한국 기업가들의 행동양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 공장 및 회사설립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일제시기 제주도 기업가별로 경영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II장에서 일제하 제주도 공장설립 현황, III장에서는 일제하 제주도 회사설립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IV장에서는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별 경영활동을 논하였다.

3)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 日本興信所京城支所, 18~19쪽.

II. 일제하 제주도 공장설립 현황

1910년대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농업과 수산업, 임업과 축산업 등 대부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공업의 존재가 미약했다고 보아진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의 공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고, 제조업 역시 수산물 가공이나 생필품, 공예품들의 가내수공업, 특히 죽제품, 관물 등이 농가의 부업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⁴⁾ 또한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당시 제주도의 공업수준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제주도의 공업은 유치한 수준 단계로 제주도의 자원, 즉 자연환경을 이용한 약간의 자원을 가공하는 수공업 제품들, 예를 들면 죽제품, 조선모자, 탕건, 양태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 외에 주로 자급자족적 성격을 지닌 약간의 면직물 제품이 존재했었다”고 한다.⁵⁾ 이처럼 1910년대 초기 제주도의 공업은 그 수준이 미약했었고 도외로 반출되는 품목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수입대체의 목적, 자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생산 역시 제한적이었다고 보아진다. 1910년대 중반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한 패각류나 통조림 혹은 수산물 가공업 등과 같은 제품은 주로 일본인들이 제주도에 진출하여 스스로 경영하였고 제품도 바로 일본으로 반출하였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민들에게는 고용창출 효과, 지역내부의 자본기술의 축적 등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별의미가 없었다.⁶⁾

1920년대에 들어 제주도의 공업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표 1>는 1920년대 중반 제주도 공업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자료이다. 1926년 말 현재 제주도에는 34개(분공장 2개 포함) 공장이 설립되었는데, 이 중 일본인 공장은 13개, 한국인 공장은 21개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제주도 공장은 전통적 공업으로 양말, 주조제조 공장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외에 일본인들의 제주도 진출과 함께 나타난 공장, 즉 전복·소라를 이용한 통조림공장, 전복·소라 껍질을 조제(연마)한 단추제조 공장 등이 존재했었다. 당시 특징적인 현상은 수산물 가공품, 조개단추 이외에 표고버섯을 제조하는 공장이 설립됐다는 것이다. 이들 공장들은 모두 일본인이 설립한 것으로 자본금이 총 59,000圓, 한국인을 포함한 노동자 수는 67명(일본인 13명)에 달했다.

4) 진관훈(1999),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32쪽.

5) 高嶺鍾(1930), 『濟州島便覽』, 36쪽.

6)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322~323쪽.

연간 생산량은 20,3000근이고 생산액은 64,960圓에 이르러 다른 제조공장에 비해 대규모 조직을 형성한 가공공장이었다.

〈표 1〉 제주도 주요 공장설립 현황(1926년 현재)

(단위 : 圓, 다스, 상자, 관, 석, 근)

| 공 장 명 | 공장주 | 국적 | 자본금 | 공장 종류 | 연간 노동력 | | | 연간 생산액 | | |
|--------------|-------|----|--------|--------|--------|----|----|--------|--------|--------|
| | | | | | 일본 | 한국 | 합계 | 생산품목 | 수량 | 금액 |
| 南鮮양말직조공장 | 金卿贊 외 | 한국 | 5,000 | 양말제조업 | - | 35 | 35 | 면양말 | 10,340 | 21,020 |
| 濟州양말직조공장 | 張昌希 | 한국 | 5,000 | 양말제조업 | - | 20 | 20 | 면양말 | 5,200 | 13,520 |
| 南昌양말직조공장 | 文昌憲 | 한국 | 5,000 | 양말제조업 | - | 17 | 17 | 면양말 | 2,500 | 6,500 |
| 山口통조림공장 | 山口源藏 | 일본 | 5,000 | 통조림제조업 | - | 5 | 5 | 전복, 소라 | 150 | 7,100 |
| 竹中통조림제조朝鮮分工場 | 竹中新太郎 | 일본 | 40,000 | 통조림제조업 | 8 | 36 | 44 | 쇠고기 | 2,100 | 42,000 |
| 大田통조림협채리분공장 | 太田美之吉 | 일본 | 3,000 | 통조림제조업 | - | 4 | 4 | 전복, 소라 | 170 | 1,870 |
| 大田통조림하마리분공장 | 太田美之吉 | 일본 | 5,000 | 통조림제조업 | 1 | 2 | 3 | 전복, 소라 | 865 | 10,065 |
| 金成文통조림공장 | 金成文 | 한국 | 4,000 | 통조림제조업 | - | 4 | 4 | 전복, 소라 | 250 | 2,900 |
| 康性益통조림공장 | 康性益 | 한국 | 5,000 | 통조림제조업 | - | 6 | 6 | 전복, 소라 | 730 | 8,430 |
| 大成통조림공장 | 黃舜河 | 한국 | 4,000 | 통조림제조업 | - | 6 | 6 | 전복, 소라 | 470 | 5,520 |
| 三成商會통조림공장 | 高殷三 | 한국 | 8,000 | 통조림제조업 | - | 7 | 7 | 전복, 소라 | 300 | 3,800 |
| 高見통조림성산포분공장 | 高見泰治 | 일본 | 30,000 | 통조림제조업 | - | 10 | 10 | 전복, 소라 | 1,080 | 13,380 |
| 玄承五통조림공장 | 玄承五 | 한국 | 9,000 | 통조림제조업 | - | 10 | 10 | 전복, 소라 | 1,050 | 13,650 |
| 韓永九통조림공장 | 韓永九 | 한국 | 7,000 | 통조림제조업 | - | 6 | 6 | 전복, 소라 | 560 | 6,360 |
| 金瓊煥통조림공장 | 金瓊煥 | 한국 | 5,000 | 통조림제조업 | - | 4 | 4 | 전복, 소라 | 480 | 5,680 |
| 高祥鳳조개단추공장 | 高祥鳳 | 한국 | 2,000 | 조개단추조제 | - | 12 | 12 | 껍질, 단추 | 2,000 | 7,000 |
| 阿部조개단추공장 | 阿部延吉 | 일본 | 1,000 | 조개단추조제 | - | 6 | 6 | 껍질, 단추 | 1,500 | 5,250 |
| 山本조개단추공장 | 山本喜三郎 | 일본 | 3,000 | 조개단추조제 | - | 5 | 5 | 껍질, 단추 | 480 | 1,680 |
| 姜興周조개단추조제공장 | 姜興周 | 한국 | 5,000 | 조개단추조제 | - | 25 | 25 | 껍질, 단추 | 2,710 | 9,485 |
| 姜興周조개단추연마공장 | 姜興周 | 한국 | 12,000 | 조개단추연마 | 2 | 43 | 45 | 껍질, 단추 | 1,500 | 4,500 |
| 康奉珍조개단추공장 | 康奉珍 | 한국 | 700 | 조개단추조제 | - | 6 | 6 | 껍질, 단추 | 880 | 3,080 |
| 金成斗조개단추공장 | 金成斗 | 한국 | 800 | 조개단추조제 | - | 8 | 8 | 껍질, 단추 | 960 | 3,360 |
| 康性益조개단추공장 | 康性益 | 한국 | 1,000 | 조개단추조제 | - | 20 | 20 | 껍질, 단추 | 1,760 | 6,160 |
| 二宮조개단추공장 | 二宮義馬 | 일본 | 3,000 | 조개단추조제 | - | 20 | 20 | 껍질, 단추 | 870 | 3,045 |
| 高見조개단추공장 | 高見泰治 | 일본 | 3,000 | 조개단추조제 | - | 21 | 21 | 껍질, 단추 | 900 | 3,150 |
| 福田조개단추공장 | 福田耕一 | 일본 | 2,000 | 조개단추조제 | - | 19 | 19 | 껍질, 단추 | 1,700 | 5,950 |
| 黒川소주양조장 | 黒川程吉 | 일본 | 15,000 | 소주제조업 | 3 | 4 | 7 | 소주 | 820 | 57,400 |
| 明月소주양조장 | 金聖錫 | 한국 | 10,000 | 소주제조업 | - | 4 | 4 | 소주 | 311 | 21,770 |
| 角표고제조공장 | 角 健輔 | 일본 | 15,000 | 표고제조업 | 3 | 12 | 15 | 표고버섯 | 7,000 | 22,400 |
| 樺島표고제조공장 | 樺島久治 | 일본 | 10,000 | 표고제조업 | 2 | 7 | 9 | 표고버섯 | 2,500 | 8,000 |
| 西郷표고제조공장 | 西郷武十 | 일본 | 10,000 | 표고제조업 | 3 | 11 | 14 | 표고버섯 | 2,700 | 8,640 |
| 河野표고제조공장 | 河野加三 | 일본 | 7,000 | 표고제조업 | 2 | 7 | 9 | 표고버섯 | 1,000 | 3,200 |
| 中村표고제조공장 | 中村鶴松 | 일본 | 10,000 | 표고제조업 | 1 | 9 | 10 | 표고버섯 | 3,700 | 11,840 |
| 衛藤표고제조공장 | 衛藤伊三郎 | 일본 | 7,000 | 표고제조업 | 2 | 8 | 10 | 표고버섯 | 3,400 | 10,880 |

자료 :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其二, 濟州島』, 1929년.

그 후 1930년도 제주도에는 53개의 공장이 존재하였는데 일본인 공장은 22개, 한국인 공장은 31개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양말제조를 중심으로 통조림, 조개단추粗製(연마), 주조제조 공장 등을 설립한 반면 일본인들은 통조림과 표고제조를 중심으로 설립하면서도 조개단추조제(연마), 주조, 옥도제조 공장 등을 연이어 설립하였다. 결국 당시 한국인들은 주로 양말, 양조제조 공장 등을 경영하면서도 제품명이 다양해지고 규모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1930년 후반에는 외부로부터 공산품들이 대거 수입되면서 제주도 공업이 점차 침체되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제주도 근해에서 어업 활동을 시작하면서 해산물 가공공장이 생겨났고, 육·해산물을 원료로 하는 주조, 제빙, 패구 등의 공장도 생겨났다. 또한 만주사변 이후 군수품의 공출을 목적으로 하는 옥도제조 공장들도 생겨났다.⁷⁾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설립된 제주도 공장의 실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910년부터 1939년까지의 30년간 제주도에 설립된 공장 수는 32개이다. 1910년대 2개에 불과하였으나 1920년대에는 21개가 설립되었으며, 1930년대는 9개로 1920년대에 비해 공장 설립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20개, 일본인 12개로, 그 중에 제주도민은 대부분 소주제조와 소라통조림 등을 생산한 반면 일본인은 옥도제조, 소라통조림 등을 생산하였다. 특히 옥도 제조업은 해조류, 우뭇가사리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옥도 톱키 및 옥도 폼 등 의약품 원료를 추출하는 것인데, 일본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옥도 원료 채집이 일본 내에서 어려워지자 제주도로 눈을 돌려 옥도 제조공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한림 7개, 제주, 성산, 구좌 등 4개, 서귀, 애월 등 3개, 이외에 대정, 조천, 표선 등 2개, 안덕 1개로 분포되어 있다.⁸⁾ 대부분의 공장설립 지역은 한림을 중심으로 원재료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항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한림은 성산포, 서귀포와 더불어 가장 큰 항구였다. 특히 일본인이 설립한 공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림과 성산지역에 분포한 이유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제주도를 일찍이 식민지 교두보로 삼고 해산물을 가공하는 각종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1870년대 일본 잠수기업자들이 이미 들어왔고 제주도 남서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이다.⁹⁾ 특히

7) 진관훈, 앞의 책, 326쪽.

8) 고광명·진관훈(2005), 「일제하 濟州島 회사의 설립과 경영활동」, 『을사조약과 20세기 초의 한반도』, 제 4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 자료집, 474쪽.

9) 河原典史(2001), 「植民地期の韓國濟州島における日本人經營の缶詰製造業—竹中缶詰製造所の濟州分工場を中心に」, 『空間と移動の地域地理』, 地域情報研究センター, 205~238쪽.

1905년에는 일본인 石原·鈴木 등이 합자하여 한국물산주식회사를 설립해 화학원료로서의 옥도제조 및 멸치잡이 어업 등의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옥도제조에 필요한 감태 채취에 있어서 처음에는 三重縣 志摩의 해녀가 고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제주도 해녀로 전환했다고 한다.¹⁰⁾

결국 당시 제주지역의 공장설립은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제주지역의 풍부한 해산물 원료를 가공하기 수월한 주요 항구와 연결한 지역에 많은 공장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장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제조업이나 여타 산업 부분의 경제활동도 아울러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제주도 주요 공장설립 현황(1940년 현재)

| 공 장 명 | 공 장 주 | 국적 | 공장 소재지 | 설립연월 | 생산품목 |
|----------------|--------|----|--------------|-----------|--------|
| 石本통조림공장 | 石本初石衛門 | 일본 | 한림면 한림리 | 1912년 3월 | 소라통조림 |
| 康性益통조림공장 | 康性益 | 한국 | 서귀면 서귀리 650 | 1918년 4월 | 소라통조림 |
| 三和양말제조소 | 張昌希 | 한국 | 제주읍 용담리 35 | 1920년 9월 | 양말제조 |
| 太田통조림(주)분공장 | 太田美之吉 | 일본 | 대정면 하모리 1063 | 1921년 4월 | 소라통조림 |
| 太田통조림(주)본공장 | 太田美之吉 | 일본 | 한림면 협재리 1617 | 1921년 4월 | 소라통조림 |
| 玄承五통조림공장 | 玄承五 | 한국 | 성산면 성산리 246 | 1921년 4월 | 소라통조림 |
| 明月소주공장 | 金滿龍 | 한국 | 한림면 송포리 398 | 1925년 4월 | 소주제조 |
| 南昌양말공장 | 文炳淑 | 한국 | 제주읍 도두리 576 | 1926년 2월 | 양말제조 |
| 朝日소주양조공장 | 朴仁植 | 한국 | 구좌면 세화리 2 | 1926년 2월 | 소주제조 |
| 李完律소라통조림 紐貝공장 | 李完律 | 한국 | 애월면 애월리 1741 | 1926년 3월 | 소라통조림 |
| 竹中新太郎통조림공장 | 竹中新太郎 | 일본 | 한림면 송포리 295 | 1926년 3월 | 肉貝類통조림 |
| 廣榮(주)성산옥도공장 | 下岡守之 | 일본 | 성산면 성산리 233 | 1926년 5월 | 옥도제조 |
| 瀛州주조조합 | 韓保權 | 한국 | 조천면 함덕리 1288 | 1926년 6월 | 소주제조 |
| 金泉소주공장 | 康洪민 | 한국 | 구좌면 서김녕리 13 | 1926년 9월 | 소주제조 |
| 裕進소주공장 | 韓行力 | 한국 | 성산면 성산리 178 | 1926년 9월 | 소주제조 |
| 大東양주공장 | 高容基 | 한국 | 애월면 하귀리 1 | 1927년 6월 | 소주제조 |
| 月露소주공장 | 金文奎 | 한국 | 애월면 애월리 1722 | 1927년 6월 | 소주제조 |
| 李道一삼점주조소 | 李道一 | 한국 | 대정면 하모리 770 | 1927년 11월 | 소주제조 |
| 南昌양조장 | 宋權殷 | 한국 | 표선면 표선리 666 | 1928년 6월 | 소주제조 |
| 湖南製麵상회 | 金致休 | 한국 | 제주읍 일도리 1275 | 1928년 | 면류제조 |
| 濟州통조림공장 | 崔允淳 | 한국 | 제주읍 삼도리 1173 | 1929년 2월 | 소라통조림 |
| 下道통조림공장 | 吳銀浩 | 한국 | 구좌면 하도리 1803 | 1929년 5월 | 소라통조림 |
| 三共酒造조합 | 姜文玉 | 한국 | 서귀면 서귀리 551 | 1929년 9월 | 소주제조 |
| 金鑄珉통조림공장 | 金鑄珉 | 한국 | 구좌면 서김녕리 981 | 1929년 1월 | 소라통조림 |
| 森下통조림제조공장 | 森下富太郎 | 일본 | 표선면 표선리 864 | 1930년 3월 | 소라통조림 |
| 高祥鳳통조림 및 貝구공장 | 高祥鳳 | 한국 | 조천면 조천리 2689 | 1932년 9월 | 소라통조림 |
| 山口沃度공장 | 山口嘉一郎 | 일본 | 서귀면 서귀리 648 | 1932년 12월 | 옥도제조 |
| 翰林沃度제조공장 | 竹中新太郎 | 일본 | 한림면 동명리 1694 | 1934년 1월 | 옥도제조 |
| 和順제분공장 | 和田芳松 | 일본 | 안덕면 화순리 833 | 1934년 5월 | 감자전분 |
| 福田통조림공장 | 福田耕一 | 일본 | 성산면 성산리 250 | 1934년 6월 | 소라통조림 |
| 濟州島漁業(주)제일제빙공장 | 有吉京吉 | 일본 | 한림면 송포리 294 | 1937년 1월 | 제빙업 |
| 濟州島제분공장 | 足立孝一 | 일본 | 한림면 동명리 711 | 1938년 11월 | 감자전분 |

자료 : 朝鮮總督府殖産局編, 『朝鮮工場名簿』, 1940년판.

10) 藤田明良·李善愛·河原典史(2001),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濟州島を中心に』, 『青丘學術論集』, 第19集,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17쪽.

Ⅲ. 일제하 제주도 회사설립 현황

조선실업신용대감(1931)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활동한 29명의 기업가 가운데 한국인은 18명(62%)으로 일본인 11명(38%)에 비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 기업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업종은 잡화와 포목, 미국 관련 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1910년대에는 일본인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많았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 한국인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간 판매한 매출액은 박종실¹¹⁾이 4만6천8백원으로 제주도에서는 제1위를 차지하였으나 제2위는 崔允淳으로 4만3천원, 제3위는 村田嘉藤治으로 4만2천원이었다. 한편 부동산 등 재산총액을 비교하여 보면 박종실의 소유한 재산총액은 8만5천원이었으며 최윤순은 4만6천원, 村田嘉藤治은 5만5천원이었다. 그 외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3만5천원에서 6천2백원에 이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순자산은 박종실이 7만원, 角健輔이 6만5천원, 최윤순과 石井榮太郎이 3만원을 차지하였다. 신용은 A, B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동업자 지위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하였으나, 지불상태, 業態부분에서는 B급, C급 상태였다.¹²⁾

<표 4>에서 보면 당시 제주도에 7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일본인 회사는 3개사, 한국인 회사는 4개사가 설립되었다. 특히 한국인이 경영활동에 참가한 제주미유조합(1919년)은 자본금이 1만5천3백원(불입자본금 1만5천3백원)으로 다른 주식회사에 비해 자본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매출액은 6만원으로 제주전기 주식회사(3만원), 제주주조주식회사(3만원)에 비해 2배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신용, 지불, 업태는 A등급으로 다른 6개 주식회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1) 박종실(1885~1966)은 호는 晴崑으로 1905년 제주최초의 상점인 '朴宗實商店'을 제주면 1도리에 개점하여 상당한 영업성과를 이룩한 근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그는 1922년 제주상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오랜 숙원사업이던 해운업에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근대기업가로 변신하게 된다. 1922년 제주상선(주), 1924년 제주면업(주), 1925년 제주통운(주), 1928년 제주주조(주), 1934년 난곡면업(주), 1935년 제주상사(주), 1936년 삼일해운(주), 1939년 제주상운(주) 등의 취체역과 1935년 소화운송(주) 감사역을 역임하였다. 김찬흠편저, 앞의 책, 233~234쪽.

12) 고광명(2003), 「일제하 濟州島 기업가 연구 : 청암 박종실의 기업가활동」, 제23회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59~72.

〈표 3〉 제주도 기업가별 현황(1931년 현재)

| 기업가 | 연령 | 업종 | 설립 연월 | 매출액 | 부동산 | 기타 자산 | 순자산 | 신용 | 지불 상태 | 업태 | 동업 순위 |
|-------|----|----------|----------|--------|--------|----------|--------|----|----------|----|----------|
| 朴宗實 | 49 | 식료품, 잡화 | 1905. 8 | 46,800 | 45,000 | 40,000 | 70,000 | A | B | B | 1 |
| 中村鶴松 | 52 | 표고, 잡화 | 1905. 9 | 17,000 | 9,000 | 15,000 | 15,000 | A | A | B | 1 |
| 西郷武十 | 59 | 잡화 | 1906. 2 | 5,500 | 8,000 | 2,000 | 5,000 | B | C | C | 2 |
| 衛藤伊三郎 | 56 | 미곡, 표고 | 1906. 4 | 31,000 | 10,000 | 28,000 | 20,000 | A | A | A | 1 |
| 由口源藏 | 48 | 토지경영 | 1906. 5 | 13,000 | 25,000 | 10,000 | - | B | B | C | 1 |
| 金時善 | 51 | 통조림, 포목 | 1906. 6 | 62,000 | 10,000 | 12,000 | 9,000 | A | A | B | 1 |
| 廣瀬千代藏 | 52 | 건축, 청부 | 1908. 6 | 40,000 | 15,000 | 5,000 | 6,000 | B | C | C | 1 |
| 崔允淳 | 45 | 綿제조, 금화 | 1909. 1 | 43,000 | 6,000 | 40,000 | 30,000 | A | A | A | 1 |
| 角健輔 | 49 | 목재, 잡화 | 1909. 2 | 36,000 | 30,000 | 60,000 | 65,000 | A | A | A | 1 |
| 村田嘉藤治 | 64 | 잡화 | 1909. 7 | 42,000 | 20,000 | 35,000 | 18,000 | A | A | C | 1 |
| 木澤友次郎 | 67 | 식료, 잡화 | 1911. 3 | 17,000 | 5,000 | 6,000 | 8,000 | A | A | B | 1 |
| 金栽煥 | 24 | 포목 | 1912. 3 | 7,000 | 7,000 | 5,000 | 8,000 | B | B | C | 2 |
| 白京淑 | 52 | 포목 | 1914. 1 | 31,500 | 18,000 | 8,500 | 20,000 | B | A | A | 1 |
| 金錫潤 | 35 | 정미 | 1914. 3 | 9,400 | 2,000 | 35,000 | 3,000 | B | A | B | 2 |
| 黃鎮益 | 35 | 포목 | 1920. 1 | 10,000 | 1,200 | 5,000 | 3,000 | C | B | C | 2 |
| 李順郷 | 39 | 미곡, 당분 | 1920. 2 | 26,000 | 4,000 | 8,000 | 7,000 | B | A | B | 1 |
| 古賀龜太郎 | 54 | 미곡, 잡화 | 1921. 1 | 18,000 | 35,000 | 900 | 8,000 | A | A | B | 1 |
| 朴離嶺 | 60 | 기와제조, 운수 | 1921. 4 | 18,000 | 20,000 | 15,000 | 25,000 | A | C | C | 1 |
| 金己祚 | 43 | 목재 | 1922. 5 | 30,000 | 5,000 | 7,000 | 6,000 | C | C | C | 1 |
| 文公燦 | 46 | 포목 | 1923. 2 | 14,000 | 5,000 | 3,500 | 5,000 | B | B | B | 1 |
| 文景玩 | 51 | 포목 | 1923. 3 | 20,000 | 5,000 | 3,000 | 5,000 | B | A | B | 2 |
| 韓錫範 | 51 | 포목 | 1923. 3 | 17,000 | 4,000 | 5,000 | 5,000 | B | A | C | 1 |
| 田口象次郎 | 48 | 문방구 | 1923. 4 | 18,000 | 8,000 | 7,000 | 8,000 | B | C | C | 1 |
| 李允熙 | 50 | 回漕 | 1924. 6 | 7,000 | 10,000 | 25,000 | - | B | A | B | 1 |
| 石井榮太郎 | 58 | 吳服, 잡화 | 1924. 7 | 6,100 | 10,000 | 30,000 | 30,000 | A | A | C | 1 |
| 康行杓 | 51 | 해산물, 청부 | 1925. 1 | 5,000 | 15,000 | 2,000 | - | C | C | C | 2 |
| 康芝洙 | 42 | 미곡, 금화 | 1925. 4 | 5,000 | 15,000 | 10,000 | 16,000 | A | A | C | 1 |
| 宋鐘鉉 | 31 | 주류 판매 | 1926. 1 | - | 18,000 | - | - | B | B | C | 1 |
| 尹甫容 | 40 | 포목 | 1926. 4 | 33,000 | 5,000 | 8,000 | 8,000 | B | B | B | 1 |

출처 : 岡田寅喜編, 『朝鮮實業信用大鑑』, 1930년.

한편 『朝鮮總督府官報』 조사에서는 1931년 현재 기준으로 총 12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를 회사형태별로 보면 합자회사 2개사(해륙운송, 제주운송), 합명회사 2개사(개발상사, 만길), 주식회사 8개사(제주물산, 제주상선, 제주면업, 제주전기, 제주통운, 제주남부운수, 제주주조, 조선옥도)였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인 5개사, 일본인 4개사, 한일합자 3개사이며, 그 중에 4개사(제주상선, 제주면업, 제주통운, 제주주조)는 박종실이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던 회사였다. 이에 대해 高承濟(1973)는 1930년

말경에 이르러 제주도에는 13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 중 일본인 회사는 1개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한일합자 3개사가 존재했는데 나머지 9개사는 오로지 민족 자본에 의해 설립된 한국인 회사들이었다. 아울러 일본인이 설립한 1개사는 제주도 한림읍에 설립된 수산회사인 제주도어업주식회사로써 상공업에 대한 일본인 세력은 거의 좌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표 4> 제주도 주요 회사설립 현황(1931년도 현재)

(단위 : 圓)

| 법인기업 명 | 대표자 | 영업목적 | 설립 연월 | 자본금 | 불입 자본금 | 매출액 | 배당 | 신용 | 지불 | 업태 |
|------------|-------|-------|---------|---------|--------|--------|----|----|----|----|
| 濟州米油組合 | 朴宗實 | 미유판매업 | 1919.12 | 15,300 | 15,300 | 60,000 | 30 | A | A | A |
| 濟州商船株式會社 | 金根蒼 | 선박운수업 | 1922. 8 | 150,000 | 37,000 | - | - | B | B | B |
| 濟州綿業株式會社 | 金根蒼 | 면화판매업 | 1924.10 | 200,000 | 50,000 | 20,000 | 缺 | C | C | C |
| 濟州電氣株式會社 | 小倉武之助 | 전등·전력 | 1925. 2 | 100,000 | 25,100 | 30,000 | 6 | C | C | C |
| 濟州通運株式會社 | 萩原 駒藏 | 운송업 | 1925. 6 | 6,000 | 6,000 | - | - | C | C | C |
| 濟州南部運輸株式會社 | 康性益 | 자동차운수 | 1927. 3 | 7,000 | 7,000 | - | - | C | C | C |
| 濟州酒造株式會社 | 衛藤伊三郎 | 소주제조업 | 1928. 5 | 40,000 | 10,000 | 30,000 | 超 | B | B | B |

출처 : 岡田寅喜編, 『朝鮮實業信用大鑑』, 1930.

이러한 제주도민자본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일제시기 다수의 법인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때 제주도민들 가운데 유력자본가들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와 경쟁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 몇몇 회사를 살펴보면 일제시기 제조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창고업 등 비교적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설립된 제주도 회사의 실태를 보면 그 특징을 몇 가지 엿볼 수 있다.

『朝鮮總督府官報』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제주도내 설립된 회사는 52개사이다. 1920년대에 8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대에는 18개사, 1940년대 23개사로 회사설립이 증가하였다.¹⁴⁾ 자본규모별 현황을 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13) 高承濟(1973), 「韓國海運業의 展開과 濟州商船會社의 地位」, 『月刊商議-企業과 企業人의 回顧』, 5월호, 대한상공회의소, 44쪽.

14) 高廣明(2003), 「植民地期における濟州島民會社の設立と發展」, 第4回 現代韓國朝鮮學會發表資料, 5-6쪽.

가속화됨에 따라 회사설립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자본금 10만圓 이하의 회사설립도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자본금이 30만圓 이상의 2개사는 일본인이 설립한 제주도어업(주)과 제주자동차(주)로서 대규모 자본금에 따른 제주인의 회사설립은 없었다. 이에서 보면 당시 제주자본은 규모 면에서 30만圓 미만이 한계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16개사(자본금 총액 1,125,000圓), 운수업 16개사(자본금 총액 970,950圓)가 진출하여 각각 전체의 30.7%를 점하고 있었다. 그 외에 상업에는 전체의 15.3%에 해당하는 8개사(322,000圓)가 진출하였고, 양조업 7개사(558,000圓), 수산업 3개사(302,000圓), 전기업 1개사(100,000圓), 기타 영화, 연극 1개사(21,000圓) 등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당시 한국인 회사설립에 제주도민의 토착자본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일본인의 회사설립에 비해 12개사 정도 많았지만 자본금에서는 다소 적은 편에 속한다. 당시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주력한 산업분야는 제조업, 운수업, 상업 등이었으며, 특히 한국인은 주조업 분야의 회사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제주자본의 규모나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주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주조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선택과 집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30개사, 일본인 18개사, 한일합자 4개사이며 그 중에 34개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던 회사들이다. 이를 회사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43개사, 합자회사 4개사, 합명회사 4개사, 유한회사 1개사로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회사의 소멸형태를 보면 해산이 12개사, 합병 1개사, 상호변경 6개사이며, 소멸 시기는 1920년대 1개사, 1930년대 5개사, 1940년대 13개의 회사가 소멸되었다.¹⁵⁾ 이러한 제주도민의 중심이 된 회사설립은 식민지체제 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체제에 편입되어 갔다는 점에서 일면 제한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인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제주도 최초의 근대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5) 고광명 외(2004), 「식민지기 제주도 법인회사의 설립과 발전전략」, 2004년도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 발표 자료집, 557~581.

〈표 5〉 제주도 회사설립 현황(1910~1945)

| 회사명 | 대표자 | 년도 | 국적 | 소재지 | 영업목적 | 자본금 | 소멸시기 | 소멸형태 |
|-------------|------------|------|----|-----|-------------|---------|------|------|
| (자)해륙운송 | 김현우 | 1910 | 한 | 제주군 | 운송업 | 450 | | |
| 제주목산(주) | 현기봉 외 | 1919 | 제 | 제주면 | 무역, 판매업 | 2,000 | | |
| 개발상사(명) | 谷多造 | 1919 | 일 | 제주면 | 해산물매매, 증개업 | 50,000 | 1922 | 해산 |
| 제주상선(주) | 김응두, 고석중 | 1922 | 제 | 제주면 | 해운업, 금전대부업 | 150,000 | 1934 | 해산 |
| 만길(명) | 김영진 | 1923 | 제 | 대정면 | 통조림, 단추제조업 | 10,000 | | |
| 제주운송(자) | 이윤희 | 1924 | 제 | 제주면 | 운송업 | 10,000 | 1934 | 해산 |
| 제주면업(주) | 김근시, 山口源藏 | 1924 | 합 | 제주면 | 면화매매, 가공업 | 200,000 | 1943 | 해산 |
| 제주전기(주) | 小昌武之助 | 1925 | 일 | 제주면 | 전기기구 판매업 | 100,000 | 1936 | 합병 |
| 제주통운 | 萩原駒藏, 최윤순 | 1925 | 합 | 제주면 | 자동차운송업 | 6,000 | 1942 | 해산 |
| 제주남부운수(주) | 川崎増造, 송문준 | 1927 | 합 | 우면 | 자동차운송업 | 7,000 | 1942 | 해산 |
| 제주주조(주) | 衛藤伊三郎, 角健輔 | 1928 | 일 | 제주면 | 주류제조, 판매업 | 40,000 | | |
| 조선옥도(주) | 石渡吉治 | 1930 | 일 | 제주읍 | 옥도제조업 | | | |
| 조남어업(자) | 양재룡 | 1933 | 제 | 제주읍 | 어업 및 운반업부 | 2,000 | 1934 | 해산 |
| 난곡면업(주) | 김근시 | 1934 | 제 | 제주읍 | 면화매매, 가공업 | | | |
| (주)제주해운상회 | 김일길 | 1935 | 제 | 제주읍 | 해운업, 무역업 | 20,000 | | |
| 제주상사(주) | 박종실, 角健輔 | 1935 | 합 | 제주읍 | 유통업, 보험업 | 30,000 | | |
| (자)伴商店 | 角健輔 | 1935 | 일 | 제주읍 | 잡화판매업 | 30,000 | 1940 | 해산 |
| 소화운송(주) | 김근시 | 1935 | 제 | 제주읍 | 운송업 | 10,000 | 1942 | 해산 |
| 제주도산소주판매(주) | 이동일 | 1935 | 제 | 제주읍 | 소주제조업 | 50,000 | 1940 | 해산 |
| 남선상사(주) | 김영희 | 1936 | 제 | 제주읍 | 무역, 창고, 해운업 | 50,000 | | |
| 삼일해운(주) | 김태민 | 1936 | 제 | 제주읍 | 해운업 | 22,500 | 1939 | 상호변경 |
| →제주상운(주) | 박종실 | 1939 | 제 | | | | | |
| 제주도어업(주) | 有吉京봉 | 1936 | 일 | 한림면 | 어업 및 운송업 | 300,000 | | |
| (주)고정봉회조부 | 고정봉 | 1937 | 제 | 한림면 | 화물 및 여객운송업 | 20,000 | 1941 | 상호변경 |
| →(주)竹中粗 | 竹中新太郎 | 1941 | 일 | | | | | |
| 제주목재(주) | 문재석 | 1938 | 제 | 제주읍 | 목재판매업 | 30,000 | | |
| 제주도해조(주) | 양두석 | 1938 | 제 | 제주읍 | 해조류판매업 | 80,000 | 1940 | 상호변경 |
| →제주주조(주) | 김근시 | 1940 | 제 | 제주읍 | 어업, 수산물운송업 | | | |
| 대정흥업(주) | 김대유 | 1939 | 제 | 대정면 | 농산물가공, 판매업 | 100,000 | | |
| 제일전분(주) | 강성익 | 1939 | 제 | 서귀면 | 전분제조업 | 100,000 | | |
| 성신주조(명) | 한행서 | 1939 | 제 | 성산면 | 주류제조, 판매업 | 28,000 | 1944 | 해산 |
| 제주도패구(주) | 田中晋吉 | 1940 | 일 | 서귀면 | 패구제조, 판매업 | 50,000 | | |
| 삼공주조(명) | 강문옥 | 1940 | 제 | 서귀면 | 주류제조, 판매업 | 40,000 | 1944 | 일시해산 |
| 제주도산업상사(주) | 大村隆行 | 1940 | 일 | 한림면 | 농산물판매 가공업 | 50,000 | | |
| 조선제추국(주) | 竹中新太郎 | 1940 | 일 | 서귀면 | 제추국매매, 제조업 | 15,000 | | |
| 제주산업(주) | 竹中新太郎 | 1941 | 일 | 제주읍 | 농산물가공, 판매업 | 100,000 | 1943 | 상호변경 |
| →제주산업개발(주) | 大河源三郎 | 1943 | 일 | | | | | |
| 제주도서부통조림(주) | 太田富士太郎 | 1941 | 일 | 대정면 | 통조림제조업 | 50,000 | | |
| 성산통조림(주) | 宇野正朗 | 1941 | 일 | 성산면 | 통조림제조, 판매업 | 70,000 | | |
| 제주통조림(주) | 高山固岸 | 1941 | 일 | 제주읍 | 통조림제조, 판매업 | 50,000 | | |
| 한림운송(유) | 李家輝保 | 1941 | 일 | 한림면 | 회차류운반업 | 30,000 | | |
| 제주도물산(주) | 강영효 | 1941 | 제 | 구좌면 | 해산물매매, 제조업 | 100,000 | 1943 | 상호변경 |
| →(주)신농상점 | 강영효 | 1943 | 제 | 구좌면 | 선박, 화객운송업 | | 1945 | 상호변경 |
| →구좌운송(주) | 강영효 | 1945 | 제 | | | | | |
| 홍아상공(주) | 황순하 | 1942 | 제 | 제주읍 | 해태건조용 제조업 | 100,000 | | |
| 조선해면기업(주) | 황순하 | 1942 | 제 | 제주읍 | 해면정제가공 판매업 | 180,000 | | |
| (주)조일구락부 | 萩原駒藏 | 1943 | 일 | 제주읍 | 영화, 연극 | 21,000 | | |
| 제주함운(주) | 金山倉久 | 1943 | 일 | 제주읍 | 선박, 화객운송업 | 195,000 | | |
| 제주자동차(주) | 萩原駒藏 | 1943 | 일 | 제주읍 | 자동차운수업 | 500,000 | | |
| 제주동주조(주) | 송권은 | 1944 | 제 | 성산면 | 소주제조, 판매업 | 100,000 | | |
| 제주술해주조(주) | 이도일 | 1944 | 제 | 애월면 | 소주제조, 판매업 | 150,000 | | |
| 제주남주조(주) | 강문옥 | 1944 | 제 | 서귀면 | 소주제조, 판매업 | 150,000 | | |

주 1 : (주) = 주식회사, (자) = 합자회사, (명) = 합명회사, (유) = 유한회사

주 2 : →는 상호변경 회사를 표시함.

자료 :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에서 필자 조사 작성.

IV.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경영활동

1. 김근시(金根耆)의 경영활동

1)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김근시는 1922년에 설립한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취체역을 시작으로 7개 주식회사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 제주상선주식회사(1922)를 비롯하여 제주면업주식회사(1924), 제주주조주식회사(1928), 난곡면업주식회사(1934), 소화운송주식회사(1935), 제주도해조주식회사(1938), 제주산업주식회사(1941) 등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특히 그는 다른 기업가가 설립한 회사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했기보다는 회사설립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가 회사설립 및 경영에 관계한 7개사 중에서 4개사는 1940년 초에 해산되거나 상호 변경된 회사이며, 1개사는 1934년 9월 27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어 청산종결하게 된다(<표 6> 참조).

<표 6> 김근시의 회사설립과 경영참여

(단위 : 圓)

| 공장 및 회사 명 | 대 표 자 | 영업목적 | 설 립 | 자본금 | 소재지 | 국적 | 소멸시기 | 소멸형태 |
|-----------|-------------|-----------|------|---------|-----|----|------|------|
| 제주상선주식회사 | 김응두, 고석중 | 해운업 | 1922 | 150,000 | 제주면 | 한국 | 1934 | 해산 |
| 제주면업주식회사 | 김근시, 山口源藏 | 면화매매, 가공업 | 1924 | 200,000 | 제주면 | 한일 | 1943 | 해산 |
| 제주주조주식회사 | 衛藤伊三郎, 角 健輔 | 소주제조업 | 1928 | 40,000 | 제주면 | 일본 | | |
| 난곡면업주식회사 | 김근시 | 면화가공 판매업 | 1934 | | 제주읍 | 한국 | | |
| 소화운송주식회사 | 김근시 | 운송업 | 1935 | 10,000 | 제주읍 | 한국 | 1942 | 해산 |
| 제주도해조주식회사 | 양두석 | 해조류판매업 | 1938 | 80,000 | 제주읍 | 한국 | 1940 | 상호변경 |
| 제주산업주식회사 | 竹中新太郎 | 농산물가공판매 | 1941 | 100,000 | 제주읍 | 일본 | 1943 | 상호변경 |

출처 : <표 3>과 동일.

2) 취체역 및 감사역 재직기간

김근시는 1922년에 해운업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제주상선주식회사에서 약 12년 동안 취체역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 경영참여 현황을 보면 회사설립에 관계된 7개사에서 취체역 및 감사역을 역임하였다. 취체역의 재직기간은 제주상선주식회사 5회, 제주면업주식회사 3회, 소화운송주식회사 2회, 나머지 3개사에서 취체역 1회를 역임하였으며 제주산업주식회사에서 감사역 1회를 역임하였다. 특히 1924년에 설립

된 제주면업주식회사에서 약 20년 동안 취체역으로 활동한 사실은 제주지역의 면화매매 및 가공업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면화가공·판매업을 중심으로 해운업, 운송업, 소주제조업 등 여러 업종에서 제주기업가로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김근시의 취체역과 감사역 재직기간

(단위 : 圓)

| 공장 및 회사 명 | 대 표 자 | 영업목적 | 설 립 | 자본금 | 취체역 | 감사역 | 회수 |
|-----------|-------------|-----------|------|---------|-----------|-----------|----|
| 제주상선주식회사 | 김응두, 고석종 | 해운업 | 1922 | 150,000 | 1922~1934 | | 5 |
| 제주면업주식회사 | 김근시, 山口源藏 | 면화매매, 가공업 | 1924 | 200,000 | 1924~1943 | | 3 |
| 제주주조주식회사 | 衛藤伊三郎, 角 健輔 | 소주제조업 | 1928 | 40,000 | 1928 | | 1 |
| 난곡면업주식회사 | 김근시 | 면화가공 판매업 | 1934 | | 1934 | | 1 |
| 소화운송주식회사 | 김근시 | 운송업 | 1935 | 10,000 | 1935~1937 | | 2 |
| 제주도해조주식회사 | 양두석 | 해조류판매업 | 1938 | 80,000 | 1940 | | 1 |
| 제주산업주식회사 | 竹中新太郎 | 농산물가공판매 | 1941 | 100,000 | | 1941-1943 | 1 |

출처 : 〈표 3〉과 동일.

3) 제주면업주식회사의 활동

제주면업주식회사는 1924년 10월 13일 金根蒼·山口源藏이 자본금 20만圓(불입자본금 5만圓)을 한일 공동으로 투자하여 제주면 건입리에 설립된 면화판매회사이다(설립 등기는 1924년 10월 18일). 매출액은 2만圓으로 신용, 지불, 業態는 C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업목적은 면화매매 및 가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였다. 1주당 금액은 50圓이고 1주당 불입금액은 12圓50錢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은 佐藤重活, 朴宗實, 本多 正, 崔允淳, 石井榮太郎 등이며, 감사역은 喜多又藏, 角 健輔, 任昌鉉 등이 선임되었다(존립기간은 만 20년). 1925년 11월 18일 지배인을 두게 됨에 따라 회사대표 취체역 중에서 전무 취체역 山口源藏은 지배인 萩原駒藏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925년 4월 26일 감사역 喜多又藏이 사임함에 따라 1925년 5월 10일 결원중인 감사역에 山野隴三을 선임하였다. 1926년에는 취체역 朴宗實, 佐藤重活이 사임하여 1926년 7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清水金四郎, 萩原駒藏이 취체역으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1927년 8월 30일 감사역 任昌鉉, 角 健輔, 山野隴三은 재선 중임하지만 1927년 8월 30일 山口源藏은 회사대표 취체역을 사임하였다. 1931년 8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 감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 총액을 3만7천5백圓으로 변경한다. 1939년 7월 30

일 취체역 山口源藏을 해임하고 취체역 石井榮太郎, 崔允淳은 사임하여 萩原駒藏이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동사는 1943년 11월 25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金根耆(대표 청산인), 清水金四郎, 萩原駒藏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취임하였다(1943년 12월 6일 등기)

2. 최윤순(崔允淳)의 경영활동

1)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최윤순은 1917년 제주면 3도리에 잡화, 석유, 담배, 설탕 등의 잡화를 취급하는 최윤순상점(崔允淳商店)을 개점하였다(상호등기는 1917년 9월 27일). 1928년에는 萩原駒藏과 공동으로 면화제조 판매 및 부대영업 등을 취급하는 소화상회(昭和商會)를 설립하였는데 1935년 상호가 폐지되었다(상호폐지는 1935년 3월 22일). 또한 1932년 면포를 판매하는 우도상회(牛島商會)를 설립하였는데 같은 해 상호가 폐지되면서 신응필(申應弼)에 의해 반도상회(半島商會)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상호등기는 1932년 4월 8일). 게다가 1935년 최윤순·萩原駒藏이 공동으로 유류 및 자동차의 부품 판매, 해산물을 제조 판매하는 탐라상회(耽羅商會)를 설립 운영하였다(상호등기는 1935년 10월 26일). 이처럼 최윤순은 같은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4개의 상점 내지는 상회를 운영하였는데 2개 상회의 상호가 폐지되었다.

〈표 8〉 최윤순의 회사설립과 경영참여

(단위 : 원)

| 공장 및 회사 명 | 대 표 자 | 영업목적 | 설 립 | 자본금 | 소재지 | 국적 | 소멸시기 | 소멸형태 |
|-----------|------------|-------------|------|---------|-----|----|------|------|
| 최윤순 상점 | 최윤순 | 잡화류판매업 | 1917 | | 제주면 | 한국 | | |
| 제주상선주식회사 | 김응두, 고석중 | 해운업 | 1922 | 150,000 | 제주면 | 한국 | 1934 | 해산 |
| 제주면업주식회사 | 김근시, 山口源藏 | 면화매매, 가공업 | 1924 | 200,000 | 제주면 | 한일 | 1943 | 해산 |
| 제주전기주식회사 | 小島武之助 | 전기기구 판매업 | 1925 | 100,000 | 제주면 | 일본 | 1936 | 합병 |
| 제주통운주식회사 | 최윤순, 萩原駒藏 | 자동차운송업 | 1925 | 6,000 | 제주면 | 한일 | 1942 | 해산 |
| 소화상회 | 최윤순, 萩原駒藏 | 면제조 판매업 | 1928 | | 제주면 | 한일 | 1935 | 상호폐지 |
| 제주주조주식회사 | 衛藤伊三郎, 角健輔 | 소주제조업 | 1928 | 40,000 | 제주면 | 일본 | | |
| 우도상회 | 최윤순 | 면화판매업 | 1932 | | 제주읍 | 한국 | 1932 | 상호폐지 |
| 호남어업합자회사 | 양재룡 | 어업, 운반업 | 1933 | 2,000 | 제주읍 | 한국 | 1934 | 해산 |
| 난곡면업주식회사 | 김근시 | 면화가공 판매업 | 1934 | | 제주읍 | 한국 | | |
| 탐라상회 | 최윤순, 萩原駒藏 | 자동차, 해산물판매업 | 1935 | | 제주읍 | 한국 | | |
| 제주목재주식회사 | 문재석 | 목재 판매업 | 1938 | 30,000 | 제주읍 | 한국 | | |

출처 : 〈표 3〉과 동일.

또한 최윤순은 1922년에 설립한 제주상선주식회사에서 취체역으로 취임하면서 회사 설립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는 제주상선주식회사(1922)를 비롯하여 제주면업주식회사(1924), 제주전기주식회사(1925), 제주통운주식회사(1925), 제주주조주식회사(1928), 호남어업주식회사(1933), 난곡면업주식회사(1934), 제주목재주식회사(1938) 등에서 회사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였다. 이들 회사 중에서 4개사는 1930년 중반과 1940년 초에 해산되었으며 1개사는 1936년 9월 8일 대흥전기주식회사와 합병하게 된다(〈표 8〉 참조).

2) 취체역 및 감사역 재직기간

최윤순은 1925년 제주면에 최윤순상점을 시작으로 소화상회, 우도상회, 탐라상회를 연이어 설립하여 제주도 유통업 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윤순은 회사설립에 관계된 8개사에서 취체역과 감사역으로 재직하였다. 취체역의 재직기간은 제주상선주식회사와 제주통운주식회사 4회, 제주면업주식회사와 제주주조주식회사 3회, 제주전기주식회사 2회, 나머지 2개사에서 취체역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제주목재주식회사에서는 취체역 2회, 감사역 1회를 역임하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해운업, 면화가공·판매업, 자동차운송업, 소주제조업, 어업운반업, 목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제주기업가로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최윤순의 취체역과 감사역 재직기간

(단위 : 圓)

| 공장 및 회사 명 | 대표자 | 영업목적 | 설립 | 자본금 | 취체역 | 감사역 | 회수 |
|-----------|------------|-------------|------|---------|-----------|-----------|------|
| 최윤순 상점 | 최윤순 | 잡화류판매업 | 1917 | | | | |
| 제주상선주식회사 | 김응두, 고석중 | 해운업 | 1922 | 150,000 | 1925~1934 | | 4 |
| 제주면업주식회사 | 김근시, 山口源藏 | 면화매매, 가공업 | 1924 | 200,000 | 1924~1939 | | 3 |
| 제주전기주식회사 | 小昌武之助 | 전기기구 판매업 | 1925 | 100,000 | 1925~1931 | | 2 |
| 제주통운주식회사 | 최윤순, 萩原駒藏 | 자동차운송업 | 1925 | 6,000 | 1925~1939 | | 4 |
| 소화상회 | 최윤순, 萩原駒藏 | 면제조 판매업 | 1928 | | | | |
| 제주주조주식회사 | 衛藤伊三郎, 角健輔 | 소주제조업 | 1928 | 40,000 | 1928~1935 | | 3 |
| 우도상회 | 최윤순 | 면화판매업 | 1932 | | | | |
| 호남어업합자회사 | 양재룡 | 어업, 운반업 | 1933 | 2,000 | 1933~1934 | | 1 |
| 난곡면업주식회사 | 김근시 | 면화가공 판매업 | 1934 | | 1934 | | 1 |
| 탐라상회 | 최윤순, 萩原駒藏 | 자동차, 해산물판매업 | 1935 | | | | |
| 제주목재주식회사 | 문재석 | 목재 판매업 | 1938 | 30,000 | 1939~1942 | 1938~1939 | 2, 1 |

출처 : 〈표 3〉과 동일.

3) 제주통운주식회사의 활동

제주통운주식회사는 1925년 6월 26일 萩原駒藏·崔允淳이 자본금 6천圓을 한일 공동으로 투자하여 제주면 3도리에 설립된 운송회사이다(설립등기는 1925년 7월 16일). 불입자본금은 6천圓으로 신용, 지불, 業態는 C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업목적은 운송영업을 주로 하고 기타 부대사업도 취급하였다. 1주당 금액은 20圓이고 1주당 불입금액은 20圓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은 萩原駒藏, 崔允淳, 朴宗實, 金道鉉, 金成培, 任昌鉉 등이며, 감사역은 崔元淳, 禹寧夏, 角健輔 등이 선임되었다(준립기간은 만 20년). 1926년 7월 26일에는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업목적은 운송업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 금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동년 취체역 金成培와 감사역 禹寧夏이 사임함에 따라 1928년 7월 28일 결원중인 감사역에 尾上貞彦을 선임하였다. 1936년 2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체역 任昌鉉이 사임한 후 夫子休을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같은 해 동사는 주당 50圓씩 불입하고 주당 불입액을 금25圓으로 변경하게 된다. 또한 증자 자본금 총액을 1만4천圓, 신주 불입액을 25圓으로 증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취체역 夫子休는 1938년 8월 31일에 임기 만료하여 사임함으로써 같은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원 중인 회사대표 취체역에 夫辛休이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그리고 회사대표 취체역 회의에서 '관청에 대한 청원서 및 기타 관청에 대한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崔允淳을 대표자로 선정하였다. 회사대표 취체역인 夫辛休는 1938년 11월 10일 사임하고 동년 임시주주총회에서 金德富를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선임하여 취임하였다. 1939년 4월 13일 회사대표 취체역 최윤순은 사임하고 동년 주주총회에서 李在殷이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萩原駒藏이 '관청에 대한 출원계출 및 제 행위를 할'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선임되었다. 1941년 12월 28일 감사역 角健輔는 사임하고 宇都宮市太郎이 취임하였다. 1942년 7월 15일 주주총회에서 해산하기로 결의하여 萩原駒藏(대표 청산인), 金德富, 李在殷, 金道鉉, 朴宗實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 1943년 1월 22일 청산인 李在殷은 사임하게 된다(1943년 2월 10일 등기).

3. 기업가별 영업세 납부실적

일제하 제주도내 기업가들의 영업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제주도내 기업가별 납세기록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당시 제주도에서 지역별 營業稅(本稅) 7원 이상 납부자는 제주읍 281명(개인 266, 법인 15), 한림읍 147명(개인 143, 법인 4), 애월면 40명(개인), 조천면 53명(개인 32, 법인 19)으로 총 468명이었다. 지역별로 납부금액을 보면 전체 20,743圓87錢 중에서 제주읍 12,383圓19錢(개인 10,281圓54錢, 법인 2,101圓65錢), 한림읍 6,496圓52錢(개인 5,304圓, 법인 1,192圓52錢), 애월면 985圓(개인), 조천면 876圓16錢으로 제주읍이 50% 이상 납부하였다.¹⁶⁾

법인회사별 영업세는 제주상사주식회사(490圓56錢), 제주통운주식회사(369圓92錢), 제주상운주식회사(139圓54錢), 제주주조주식회사(118圓12錢) 순으로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근시는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2개사의 영업세 188圓99錢(12.18%)과 1개사의 건적액 100圓을 납부하였다. 최윤순은 제주읍내 회

〈표 10〉 제주, 한림읍 법인회사 영업세 납부실적

(단위 : 圓)

| 회사명 | 대표자 | 영업목적 | 설립년도 | 자본금 | 국적 | 영업세 | 건적액 |
|-------------|------------|--------|------|---------|----|----------|----------|
| 제주면업주식회사 | 김근시, 山口源藏 | 면화판매업 | 1924 | 200,000 | 한일 | 90.36 | |
| 제주통운주식회사 | 萩原駒藏, 최윤순 | 운송업 | 1925 | 6,000 | 한일 | 369.92 | |
| 제주주조주식회사 | 衛藤伊三郎, 角健輔 | 소주제조업 | 1928 | 40,000 | 일본 | 118.12 | |
| 제주해운주식회사 | 김입길 | 해운업 | 1935 | 20,000 | 한국 | 21.64 | |
| 제주상사주식회사 | 박종실, 角健輔 | 유통업 | 1935 | 30,000 | 한일 | 490.56 | |
| 주식회사伴商店 | 角健輔 | 잡화판매업 | 1935 | 30,000 | 일본 | 108.14 | |
| 소화운송주식회사 | 김근시 | 운송업 | 1935 | 10,000 | 한국 | 98.63 | |
| 남선상사주식회사 | 김영희 | 무역업 | 1936 | 50,000 | 한국 | 31.66 | |
| 제주상운주식회사 | 박종실 | 해운업 | 1939 | 22,500 | 한국 | 139.54 | |
| 제주목재주식회사 | 문재석 | 목재판매업 | 1938 | 30,000 | 한국 | 83.08 | |
| 제주수산물주식회사 | 김근시 | 수산물판매업 | 1940 | 80,000 | 한국 | | 100.00 |
| 제주산업주식회사 | 竹中新太郎 | 농산물가공업 | 1941 | 100,000 | 일본 | | 100.00 |
| 제주통조림주식회사 | 高山固岸 | 통조림제조업 | 1941 | 50,000 | 일본 | | 150.00 |
| 제주홍아상공주식회사 | 황순하 | 해태건조업 | 1942 | 100,000 | 한국 | | 100.00 |
| 조선해면기업주식회사 | 황순하 | 해면정제업 | 1942 | 180,000 | 한국 | | 100.00 |
| 제주읍 계(15명) | | | | | | 1,551.65 | 550.00 |
| 제주도어업주식회사 | 有吉京吉 | 운송업 | 1936 | 300,000 | 일본 | | 1,000.00 |
| 고정봉회조부주식회사 | 고정봉 | 화물여객업 | 1937 | 20,000 | 한국 | | 100.00 |
| 竹中組주식회사 | 竹中新太郎 | 화물여객업 | 1941 | 20,000 | 일본 | 92.52 | |
| 제주도산업상사주식회사 | 大村降行 | 육해산가공업 | 1940 | 50,000 | 일본 | | |
| 한림읍 계(4명) | | | | | | 92.52 | 1,100.00 |
| 총 계(19명) | | | | | | 1,644.17 | 1,650.00 |

출처 : 濟州商工會,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1940.

16) 濟州商工會,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1940, 12쪽

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1개사의 영업세 369圓92錢(23.84%)을 납부하였다. 이 외에 제주도 기업가로 박종실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6개사를 포함한 총 영업세 1,307圓13錢(84.2%), 강성익은 1개사의 영업세 98圓63錢(6.36%)과 1개사의 건적액 100圓, 황순하는 1개사의 영업세 118圓12錢(7.6%)과 2개사의 건적액 200圓을 납부하였다. 한편 일본인 기업가로 제주도내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한 竹中新太郎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건적액 550圓 중에서 1개사의 건적액 100圓과 한림읍내 1개사의 영업세 92.52圓(100%)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영업세 납부실적으로 보더라도 김근시와 최윤순은 제주경제의 실권을 장악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했으며 기업가로서 나름대로의 기업이념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V. 맺 음 말

이 연구는 일제식민지기 제주도에 공장 및 회사설립을 한 김근시와 최윤순을 대상으로 기업가활동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에 대한 제주도 기업가별 경영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공장설립은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제주 지역의 풍부한 해산물 원료를 가공하기 수월한 주요 항구와 연접한 지역에 많은 공장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주도민의 중심이 된 회사 설립은 식민지체제 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체제에 편입되어 갔다는 점에서 일면 제한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인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제주도 최초의 근대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어진다. 셋째, 김근시는 면화가공·판매업을 중심으로 해운업, 운송업, 소주 제조업 등 여러 업종에서 제주도 기업가로서 활동하면서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최윤순은 해운업, 면화가공·판매업, 자동차 운송업, 소주 제조업, 어업 운반업, 목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제주도 기업가로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박종실은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기보다는 해운업을 통해 무역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竹中新太郎은 일제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각종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자원생산에 많은 비중을 가졌다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볼 때 일본 식민지 기간 제주도에 설립되었던 공장 및 회사의 자본은 일

인자본(日人資本)에 비해 자본 경쟁력이 열위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성격이 매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당시 제주경제는 많은 경제적 변동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고광명(2003), 「일제하 濟州島 기업가 연구 : 청암 박종실의 기업가활동」, 제23회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59~72.
- 고광명 외(2004), 「식민지기 제주도 법인회사의 설립과 발전전략」, 2004년도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557~581.
- 고광명·진관훈(2005), 「일제하 濟州島 회사의 설립과 경영활동」, 제48회 전국역사학회 발표 자료집, 473~479.
- 고광명(2005),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사례연구-남주 강성익과 우공 황순하의 경영활동」, 제24회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71~84.
- 고광명(2005),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공장·회사설립과 경영활동-남주 강성익과 우공 황순하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27권 6월호, 제주학회.
- 고광명·진관훈(2005), 「제주도 기업가 晴岩 朴宗實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8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3~31.
- 高承濟(1973), 「韓國海運業의 展開와 濟州商船會社의 地位」, 『月刊商議-企業과 企業人의 回顧』, 5월호, 대한상공회의소, 44쪽.
- 高禎鍾(1930), 『濟州島便覽』.
- 金榮洽編著(2000),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 濟州商工會(1940),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 제주상공회의소(1991), 『濟州商議五十五年史』.
- 朝鮮總督府(1929), 『生活狀態調査 基二, 濟州島』.
-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
- 朝鮮總督府殖産局編(1940), 『朝鮮工場名簿』.

- 진관훈(1999),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21~143.
-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 日本興信所京城支所.
- 高廣明(2003), 「植民地期における濟州島民會社の設立と發展」, 第4回 現代韓國朝鮮學會發表資料, 5~6쪽.
- 河原典史(2001), 「植民地期の韓國濟州島における日本人經營の缶詰製造業—竹中缶詰製造所の濟州分工場を中心に」, 『空間と移動の地域地理』, 地域情報研究センター, 205~238쪽.
- 藤田明良·李善愛·河原典史(2001),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濟州島を中心に」, 『青丘學術論集』, 第19集,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10~130.